

“반값 기차 타고 정읍 여행 오세요”



정읍시 용산호와 미르분수.

주요 관광지 QR 코드 인증 후 코레일 이용하면 50% 할인

“반값 기차 타고 정읍 여행 오세요.” 정읍시가 이달부터 정읍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철도 운임의 최대 50% 할인 혜택을 준다. 시는 기차를 이용해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철도 운임의 50% 상당을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읍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읍을 비롯한 10개 지자체와 함께 인구 감소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은 간단하다. 코레일 회원으로 가입한 후 코레일톡 앱 또는 레츠코레일 웹사이트에서 ‘지역사랑 철도여행’ 카테고리 선택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정읍 왕복 승차권(당일, 1박 2일, 2박 3일)을 구매하고 정읍의 인증 관광지 중 한 곳 이상을 방문해 QR 코드를 인증하면 된다.

정읍의 인증 관광지는 ▲내장산(매표소 옆 관광안내소) ▲구월초 지방정원 ▲내장산 단풍생태공원 ▲월영습지와 솔티 숲 ▲백제가요 정읍사 문화

공원 ▲용산호 미르샘분수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쌍화차거리 ▲무성서원 ▲한국가요촌 달하 총 10곳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은 KTX 정지역이 있어 서울에서 1시간 30분이면 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차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여행하기 좋은 곳이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고의 힐링 명소 내장산 외에도 매력 있는 관광지가 매우 많다”면서 “철도 반값 정읍여행 시대가 열린 만큼 더 많은 분이 정읍을 찾아 편히 쉬면서 재충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서남상의 신년인사회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경제 발전 공헌 표창장 수여 등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최종필)가 지난 7일 전북서남상공회의소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경제부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박일 정읍시의장, 김경태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지역상공인 및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기원'을 염원하는 동영상 시청과 함께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정읍 농수산 김적우 대표, (주)한국플리우드 은희준 대표이사, (유)상두산업 권순태 대표이사, (유)정읍 드론항공 김철민 대표에게 각각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표창장이 수여됐다.

최종필 회장은 “40여년간 상공인들의 숙원이었

던 신축회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인내심을 발휘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인내의양’의 의지로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서남상의는 1948년 정읍상공회의소

임의단체로 설립돼 1953년 상공부 인가(초대 은희상 회장), 1980년 관할구역 확장(정읍·김제·고창·부안, 10대 윤병희 회장), 2016년 전북서남상공회의소 명칭 변경(22·23대 김적우 회장)을 거쳐 정읍, 김제, 고창, 부안을 아우르는 전북 서남권의 대표 경제인 단체로 성장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민에 민생안정지원금 1인 30만원

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지급...20일부터 주민센터서 신청

남원시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대책으로 전 시민 대상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설 명절 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금은 2024년 12월31일 기준 남원시에 주소를 둔 총 7만6801명(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에게 1인당 30만원씩, 남원사랑상품권 형태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오는 20일부터 2월21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5부제(요일제)에 맞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5부제(요일제)는 출생년도 끝자리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6월30일까지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은 앞서 강한 의지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하기 위한 조치”라며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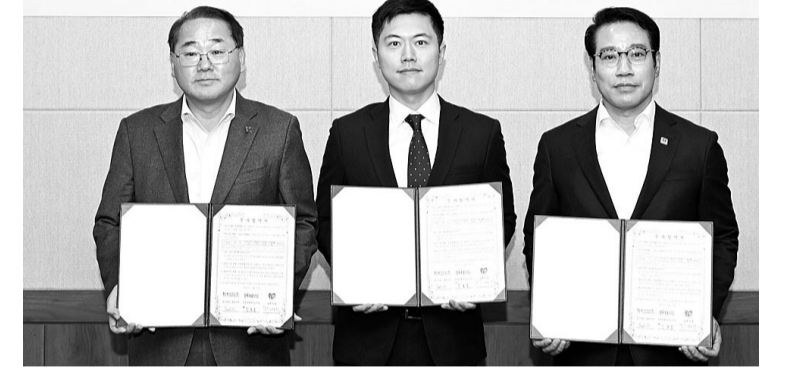
/남원=백선 기자 bs8787@

현대·기아차 협력사 남원에 103억 투자

동신산업, 일반산단에 등지...차 부품 완충재 원재료 생산

산단 동신산업(주)

(화) 남원시청 회의실 동신산업(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에 국내 굴지 자동차 제조사의 1차 협력사가 등지를 뚫는다.

남원시는 최근 전북도와 함께 현대·기아차 협력사인 동신산업의 일반산단단지 내 103억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동신산업은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완충재의 원재료 생산기술을 자체 확보해 호남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조화를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도록 친환경 해상부표를 생산함으로써 남해안 지역에 기존 공급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동신산업은 6월까지 남원일반산단 내 2만 1801.7㎡ 부지에 건축면적 5070㎡ 규모의 공장을

지나 7일 남원시청에서 열린 남원시와 전북도, 동신산업의 남원일반산단단지 내 투자협약식, 최경식(오른쪽) 시장과 전북도 김중훈(왼쪽) 경제부지사, 동신산업 오용운(가운데)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원시 제공>

지를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첫 삽

375억원 투입 드론 교육·시험장 등 조성...내년 완공

호남권 드론산업 거점 센터로 조성되는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가 첫 삽을 떴다.

고창군은 지난 8일 성내면 조동리 일원에서 ‘고창 드론통합지원센터 기공식’을 열었다.

‘고창 드론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375억원을 투입해 8만 9560㎡(약 2만 7000평) 규모로 비행시험을 비롯해 드론자격, 드론교육을 진행하는 드론통합지원센터와 활주로(200m×20m) 및 88m×40m 규모 4면을 갖춘 실기시험장을 2026년 5월에 완공 예정이다.

센터는 건립 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운영관리하며 센터를 이용하는 연간

교육 인원이 1000여명에 이르고 자격시험 인원만 1만 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향후 관련 산업의 확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고창이 드론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4차 산업의 핵심분야인 드론과 첨단물류, 반도체 등이 고창에서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고창군이 중심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다양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고창군은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균형발전을 선도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